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참고자료	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		
배포일시	2017. 11. 12.(일)	담당부서	원전수출진흥과, 에너지자원정책과
문의	원전수출진흥과 김진 과장(044-203-5330), 김성건 사무관(5332) 에너지자원정책과 신승일 사무관(5118)		

산업부, 영국·체코에 원전수출 의지 적극 표명

- 영국 하원의원 및 체코 차관 등과 양자면담 통해 원전협력 확대 논의 -
- 2017 국제에너지기구(IEA) 각료 이사회(11.7~8. 파리) 참석 -

□ 산업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파리에서 열린 2017 국제에너지기구(IEA) 각료 이사회(11.7~8일)에 참석해 **영국·체코와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원전수출 지원 계획을 전달하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**

○ 산업부는 국제에너지기구(IEA) 각료 이사회에 참석한 계기, '17.11.7. **체코 산업통상부 코바쵸프스카(Kocačoska) 차관** 면담을 통해 한국정부의 원전수출 의지를 적극 전달하고,

○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이 단순 시공분야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, 아랍에미리트(UAE) 바라카 원전 사례와 같이 **다양한 인력 교류, 기술적 협력**으로 이어지는 **산업 전반의 장기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**했다.

□ 또한, '17.11.8일 **영국의 리차드 해링턴(Richard Harrington) 하원의원 겸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차관** 면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하고, **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원전수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.**

○ 한국은 **원전건설** 분야에, 영국은 **원전해체**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, 향후 **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확대방안이 도출**되기를 희망한다고 전달했다.

□ 이어, 산업부(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)는 **'17.11.9. 영국 런던**에서 제레미 포클링턴(Jeremy Pocklington)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에너지·안보 실장을 면담하고, **우리나라 기업의 영국 신규 원전사업 참여 방안** 등을 논의했다.

○ 우수한 원전 건설 역량을 가진 한국기업이 **영국 신규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**하였으며, 이에 영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시공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.

○ 또한, 원전해체 초기단계에 있는 **한국이 해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** 원전해체 선진국인 **영국과 인력 및 기술교류 등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**했며, 영국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.

□ 한편, 산업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**2017 국제에너지기구(IEA) 각료이사회(11.7~8일)에 참석**하여 29개 회원국 대표와 **①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, ② 에너지 안보 확보, ③ 국제에너지기구(IEA)의 외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.**

* ① 준회원국 추진 등 외연확대, ② 석유, 가스,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, ③ 세계 청정에너지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

○ 특히, 액화천연가스(LNG) 시장의 혁신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과 유연성 확대가 필요함을 말하고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김성건 사무관(☎ 044-203-53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